

## 각시원추리

원추리 중에서도 작고 귀여운 것이 있다. 바로, 그 이름도 사랑스러운 각시원추리를 말한다. 원추리에 비해, 각시원추리는 잎의 길이도 짧고, 꽃의 길이도 짧다.

특히 눈으로 보아서 금방 차이를 느끼는 것은 꽃밥이다. 원추리의 꽃밥은 황색이지만, 각시원추리의 꽃밥은 흑갈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랴. 원추리는 어느 것이나 슬픔을 잊은 양, 평화로운 표정으로 웃는다.

글 시인·김재황

사진 사진여행가·김종권



옛날에 한 형제가 부모를 일시에 잃고 슬픔에 잠겼다. 이들은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서 슬픔을 잊기 위해 부모님 무덤가에 원추리를 심었다.

그러나 동생은 호심이 더욱 지극하여 부모님을 잊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그 무덤가에 난초를 심었다.

일년, 이년, 삼년, 세월이 흘렀다. 형은 슬픔을 완전히 잊고 열심히 일했으나 동생은 아주 큰 슬픔에 잠겼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작은 아들의 일이 안타까웠던지 꿈에 나타나 그를 타일렀다.

“얘야, 슬픔을 잊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에 따라 동생도 원추리를 심고 슬픔을 잊었다고 했다.

원추리는 일명 ‘망우초(忘憂草)’, ‘원초근’라고 한다. 이것을 약으로 먹으면 근심을 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추리는 뿌리를 약재로 쓴다.

생약명으로는 ‘흰초근(萱草根)’ 혹은 ‘황화근(黃花根)’이라 부르는데, 여성의 몸을 보호해 주며 이뇨와 소종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 한다.

또한 원추리를 삶아서 먹으면 과처럼 매운 맛을 지닐 뿐더러 향긋하여 나물로도 많이 애용했다. ‘금침채(金針菜)’라고 하면, 바로 이 ‘원추리 나물’을 이르는 말이다. 더군다나 아이를 밴 여인이 이 꽃을 머리에 꽂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마저 있다. 그래서 ‘의남초(宜男草)’라 부르기도 한다.

문일평의 ‘화하만필(花下漫筆)’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당나라 명황이 양귀비와 더불어 하루는 청화궁에 놀러 가서 양귀비 어깨에 기대어 모란꽃을 상완하다가 한 가지를 꺾어 들고 말했다.

“오직 흰초(萱草)가 근심을 잊게 할 뿐, 이 꽃은 더욱 술을 잘 깨게 한다.”

이 꽃이란 모란이요, 흰초란 원추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